

2010년 석유수요전망

본 자료는 대한석유협회 석유수요전망위원회의 보고서
 「2010년 석유수요전망」의 내용중 발췌·요약한 것이다. <편집자주>

- 대한석유협회 석유수요전망위원회 -

I. 석유수요전망 수립 배경

□ 석유는 총에너지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98년 총에너지수요의 약 54.6%)하면서 그동안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음.

따라서, 현재 석유산업의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중장기 석유수요를 전망함으로써, 정부의 각종 정책수립과 정유업계의 시설투자 및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 이에 대한석유협회는 중장기 석유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95년에 관련업계 및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석유수요전망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3회에 걸쳐 「2010년 석유수요전망」을 발표한 바 있음.
- 금년에는 IMF체제 이후 변화된 경제여건 등 일련의 석유수급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중장기 수요를 재전망하게 됨

◇ 금번 중장기 수요전망에 반영된 주요 변동요인은 다음과 같음

첫째, 그동안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던 국내경기가 '98년 IMF 금융위기로 마이너스성장(△5.8%)을 기록하는 등 향후 경제전망이 재조정되었고

둘째, 국내 석유수요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무려 15.6% 감소하여 지난 '85년 석유파동에 따른 1.0% 감소이후 13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석유수요의 성장기조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됨.

셋째, 산업자원부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및 한전의 발전용 연료유의 사용계획이 수정되고 자동차 보유대수 등 기타 석유수급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발생함.

II. 석유의 수급환경

1. 국내석유수요

- 국내석유수요는 지난 10년동안 연평균 9.7%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기간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88~'91년 기간동안의 석유수요증가율은 연평균 19.2%, '91~'94년 기간동안은 13.5%, '94~'97년 동안은 6.4%로 급격히 둔화되다가 '98년은 경제위기를 맞아 석유수요가 전년대비 무려 15.6% 감소하였음.

- 이와같은 추세는 80년대 후반에 들어 높은 경제성장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편의성 연료의 선택이 늘었고, 차량보유대수의 높은 증가 등으로 석유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 최근 들어서면서 경제성장의 둔화, 환경규제의 강화 등으로 인한 LNG 등 타연료로의 대체로 석유의 수요가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임.
- 특히, 지난해는 IMF체제에 따른 경제난 심화로 GDP가 마이너스 성장(△5.8%)한데다 특소세 및 환율급등으로 석유가격이 인상되고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기인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
- 향후에는 경제성장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세제개편 및 환경규제강화에 따른 석유의 타연료로의 전환 등으로 수요증가율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석유수요증가율 추이〉

(단위 : %)

| | '88~'91 | '91~'94 | '94~'97 | '98 | '99.상반기 |
|---------|---------|---------|---------|-------|---------|
| 연평균 증가율 | 19.2 | 13.5 | 6.4 | △15.6 | 7.9 |

2. 국내경제성장

- '98년에는 금융 외환위기에 따른 내수위축, 산업활동 부진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성장하였으나
- 금년 들어서는 금융, 기업구조조정효과가 가시화되고 세계경제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음.
- 향후에는 '98-2000년 기간동안은 연평균 5.7%, 2000-2005년 기간동안 은 연평균 5.7%, 이후 2010년 까지는 연평균 5.2%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국내 총생산전망〉

| | 1998 | 1999 | 2000 | 98-2000 | 2000~2005 | 2005~2010 |
|--------|------|------|------|---------|-----------|-----------|
| 증가율(%) | △5.8 | 6.5 | 5.0 | 5.7 | 5.7 | 5.2 |

참조 : 산업자원부의 「한국경제의 전망과 산업정책」과 WEF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3. 국제유가

- 산유국들의 감산합의와 세계 경제회복세에 따른 수요 증가로 유가는 2000년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이며, 유가의 상향 안정화로 2000년 부터 Non-OPEC의 증산이 예상되나, 세계 수요의 증가와 OPEC의 유가관리 정책으로 큰 폭의 등락보다는 약보합세를 시현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유가는 2000년 초까지는 강세가 예상되나, 이후에는 점차 하락하여 2005년에는 현재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이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세에 따른 석유수요의 증가로 유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국제유가 전망〉

(단위 : \$/bbl)

| | 1999 | 2000 | 2001 | 2002 | 2005 | 2010 |
|-------|-------|-------|-------|-------|-------|-------|
| Dubai | 17.00 | 18.20 | 17.00 | 16.90 | 17.10 | 22.20 |
| Brent | 17.60 | 19.10 | 18.00 | 17.90 | 18.10 | 23.20 |

참조 : EIA 및 PIRA자료

4. 무역수지

- '98년에는 수출감소(△2.2%)에도 불구하고 내수 침체에 따른 수입 급감(△35.4%)에 힘입어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규모인 399억달러 흑자 기록
- '99년부터는 대외 여건 호전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이나 국내경기 회복으로 수입도 증가세로 반전하여 무역흑자 규모는 축소될 전망

〈수출입 전망〉

(단위 : 억\$)

| | 1998 | 1999 | 2000 | 2003 | 2008 |
|------|-------|-------|-------|-------|-------|
| 수출 | 1,332 | 1,340 | 1,420 | 1,730 | 2,590 |
| 수입 | 933 | 1,090 | 1,245 | 1,685 | 2,570 |
| 무역수지 | 399 | 250 | 175 | 45 | 20 |

참조 : 산업자원부의 「한국경제의 전망과 산업정책방향」('99.1.13)

5. 산업구조

- 산업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제조업의 비중은 다소 감소할 것이나 컴퓨터 S/W, 산업디자인, 경영컨설팅, 광고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 발전하면서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 향후 산업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국내 산업구조 전망〉

(단위 : %)

| | 1998 | 2003 | 2008 |
|------------|--------|--------|--------|
| 농림수산업 | 6.4 | 5.3 | 4.1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31.4 | 32.3 | 32.8 |
| (제조업) | (25.4) | (24.9) | (24.4) |
| (관련서비스업) | (6.0) | (7.4) | (8.8) |
| 기타 서비스업 | 62.2 | 62.4 | 63.1 |

참조 : 산업자원부의 「한국경제의 전망과 산업정책방향」(99.1.13)

6. 자동차 보유대수

〈자동차 보유대수〉

(단위 : 천대, %)

| | 승용차 | | | 승합차+화물차 | | |
|---------|--------|-----|------|---------|-------|------|
| | 휘발유 | 경유 | LPG | 휘발유 | 경유 | LPG |
| 1998 | 6,883 | 381 | 317 | 78 | 2,635 | 175 |
| 2000 | 7,598 | 443 | 467 | 86 | 3,025 | 326 |
| 2005 | 10,329 | 644 | 711 | 92 | 3,778 | 447 |
| 2010 | 12,677 | 825 | 937 | 95 | 4,356 | 545 |
| 연평균 증가율 | | | | | | |
| 98-00 | 5.1 | 7.8 | 21.4 | 5.0 | 7.1 | 36.1 |
| 00-05 | 6.3 | 7.8 | 8.8 | 1.4 | 4.5 | 6.5 |
| 05-10 | 4.2 | 5.1 | 5.7 | 0.6 | 2.4 | 4.0 |
| 98-10 | 5.2 | 6.7 | 9.5 | 1.7 | 4.1 | 9.9 |

주) '97년도 국토개발 연구원 전망치에서 최근 차량증가세 반영

- 자동차 보유대수는 '98년 10,469천대에서 2010

년 19,435천대로 연평균 5.3%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

- 휘발유차량 및 경유차량은 연평균 5.2%, 4.1% 증가하는 반면, LPG차량은 9.6%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됨

III. 예측방법

- 용도에 따라 산업, 수송, 가정산업, 발전, 도시가스, 공공기타로 대별
- 산업부문 및 가정산업부문은 총에너지의 수요에서 에너지원별 수요전망을 감안하여 예측
 - 비 연료유인 나프타는 석유화학업종의 설비증설 및 경기를 반영
- 수송부문은 수송수단별 사용연료를 구분하여 예측
- 발전부문은 한전의 중장기 연료 소비계획을 반영
- 도시가스부문은 LPG공급사,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 회사의 수급계획을 반영

IV. 수요전망

1. 총괄

- 국내석유수요는 2010년까지 연평균 3.5% 증가하여 10억 1,379만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연평균 수요증가율 '98-2000년은 7.9%, 2000-2005년은 3.1%, 2005-2010년 2.3%를 나타내 점차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됨.
- 부문별로는 산업, 수송, 가정산업, 발전부문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시가스부문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유종별로는 가정산업용인 보일러등유, 수송용인 부탄과 제트유를 비롯하여 휘발유, B-C유의 수요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전용유에 걸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

〈부문별 석유수요전망〉

(단위 : 천bbl, %)

| | 1998 | 2000 | 2005 | 2010 | 연평균 증가율 | | | |
|-------|---------|---------|---------|-----------|---------|-------|-------|-------|
| | | | | | 98-00 | 00-05 | 05-10 | 98-10 |
| 합 계 | 667,176 | 777,438 | 905,734 | 1,013,786 | 7.9 | 3.1 | 2.3 | 3.5 |
| (구성비) | (100) | (100) | (100) | (100) | | | | |
| 산업부문 | 342,763 | 369,671 | 422,779 | 459,457 | 3.9 | 2.7 | 1.7 | 2.5 |
| (구성비) | (51.4) | (47.5) | (46.7) | (45.3) | | | | |
| 수송 | 187,735 | 214,974 | 266,029 | 310,924 | 7.0 | 4.4 | 3.2 | 4.3 |
| (구성비) | (28.1) | (27.7) | (29.4) | (30.7) | | | | |
| 가정상업 | 102,139 | 142,582 | 167,005 | 187,559 | 18.2 | 3.2 | 2.3 | 5.2 |
| (구성비) | (15.3) | (18.3) | (18.4) | (18.5) | | | | |
| 발전 | 21,771 | 39,533 | 39,935 | 45,502 | 34.8 | 0.2 | 2.6 | 6.3 |
| (구성비) | (3.3) | (5.1) | (4.4) | (4.5) | | | | |
| 공공기타 | 8,583 | 9,345 | 9,582 | 9,832 | 4.3 | 0.5 | 0.5 | 1.1 |
| (구성비) | (1.3) | (1.2) | (1.1) | (1.0) | | | | |
| 도시가스 | 4,185 | 1,334 | 404 | 512 | -43.5 | -21.3 | 4.9 | -16.1 |
| (구성비) | (0.6) | (0.2) | (0.0) | (0.1) | | | | |

〈산업부문 에너지원별 수요전망〉

(단위 : 천 TOE, %)

| | 1998 | 2000 | 2005 | 2010 | 연평균 증가율 | | | |
|-------|--------|--------|--------|---------|---------|-------|-------|-------|
| | | | | | 98-00 | 00-05 | 05-10 | 98-10 |
| 총에너지 | 76,030 | 82,631 | 96,630 | 107,141 | 4.3 | 3.2 | 2.1 | 2.9 |
| 비석유수요 | 29,898 | 32,965 | 39,619 | 45,211 | 5.0 | 3.7 | 2.7 | 3.5 |
| 석 탄 | 17,439 | 18,375 | 20,932 | 22,593 | 2.6 | 2.6 | 1.5 | 2.2 |
| 전 력 | 9,359 | 10,220 | 13,102 | 15,277 | 4.5 | 5.1 | 3.1 | 4.2 |
| 도시가스 | 1,813 | 2,855 | 3,637 | 5,081 | 25.5 | 5.0 | 6.9 | 9.0 |
| 기 타 | 1,287 | 1,515 | 1,948 | 2,260 | 8.5 | 5.2 | 3.0 | 4.8 |
| 석유수요 | 46,132 | 49,666 | 57,011 | 61,930 | 3.8 | 2.8 | 1.7 | 2.5 |
| 연료유 | 16,384 | 19,115 | 23,368 | 25,776 | 8.0 | 4.1 | 2.0 | 3.8 |
| 비연료유 | 29,748 | 30,551 | 33,643 | 36,154 | 1.3 | 1.9 | 1.5 | 1.6 |
| 석유비중 | 60.7% | 60.1% | 59.0% | 57.8% | - | - | - | - |

2. 부문별 석유수요

(1) 산업부문

- 산업부문의 총에너지수요는 '98-2010년 동안 연평균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석유의 비중은 '98년 60.7%에서 2000년 60.1%, 2010년에는 57.8%로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산업부문의 석유수요는 2010년까지 4억 5,946만 배럴로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간별로 '98년-2000년은 연평균 3.9%, 2000-2005년 연평균 2.7%, 2005-2010년은 연평균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유종별로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프타(2010년 비중 57.9%)가 연평균 1.8% 증가하고 그 다음 비중이 높은 B-C(19.4%)가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산업부문 석유수요 전망〉

(단위 : 천bbl, %)

| | 1998 | 2000 | 2005 | 2010 | 연평균 증가율 | | | |
|-------|---------|---------|---------|---------|---------|-------|-------|-------|
| | | | | | 98-00 | 00-05 | 05-10 | 98-10 |
| 산업부문계 | 342,763 | 369,671 | 422,779 | 459,457 | 3.9 | 2.7 | 1.7 | 2.5 |
| 경 유 | 28,826 | 31,932 | 39,981 | 44,749 | 5.2 | 4.6 | 2.3 | 3.7 |
| B-C | 55,597 | 67,773 | 82,130 | 89,175 | 10.4 | 3.9 | 1.7 | 4.0 |
| 나프타 | 213,477 | 225,158 | 246,888 | 265,969 | 2.7 | 1.9 | 1.5 | 1.8 |
| 프로판 | 13,730 | 14,511 | 16,320 | 18,133 | 2.8 | 2.4 | 2.1 | 2.3 |
| 기 타 | 31,133 | 30,297 | 37,461 | 41,431 | -1.4 | 4.3 | 2.0 | 2.4 |

(2) 수송부문

- 수송부문의 석유수요는 2010년에 3억 1,092만 배럴로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기간별로 '98-2000년은 연평균 7.0%, 2000-2005년은 연평균 4.4%, 2005-2010년은 연평균 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휘발유는 승용차 보유대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과거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됨.
- 경유는 산업경기의 안정세 및 육상운송의 비중감소가 예상되어 연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B-C유는 경제전망 및 수출입 활성화 추세에 의한 해상물동량의 증대로 인해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제트유는 국제화로 인한 여객기 이용률 증대 및 수송물동량 증대로 인해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부탄은 최근의 LPG차량 증가추세가 반영되어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

〈수송부문 석유수요〉

(단위 : 천bbl, %)

| 구 분 | 1998 | 2000 | 2005 | 2010 |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98-00 | 00-05 | 05-10 | 98-10 |
| 수송부문계 | 187,735 | 214,974 | 266,029 | 310,924 | 7.0 | 4.4 | 3.2 | 4.3 |
| 휘발유 | 57,729 | 65,485 | 81,732 | 94,239 | 6.5 | 4.5 | 2.9 | 4.2 |
| 경유 | 71,581 | 79,768 | 93,400 | 102,205 | 5.6 | 3.2 | 1.8 | 3.0 |
| B-C | 23,264 | 25,608 | 34,262 | 44,313 | 4.9 | 6.0 | 5.3 | 5.5 |
| 제트유 | 14,382 | 15,957 | 21,691 | 28,703 | 5.3 | 6.3 | 5.8 | 5.9 |
| 부탄 | 19,097 | 25,800 | 31,945 | 37,758 | 16.2 | 4.4 | 3.4 | 5.8 |
| 기타 | 1,682 | 2,356 | 2,999 | 3,706 | 18.4 | 4.9 | 4.3 | 6.8 |

(3) 가정상업 부문

- 가정상업부문의 총에너지수요는 '98-2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환경문제 제로 인한 정부의 청정연료(LNG)의 확대정책과 편의성연료(전력)의 선호추세로 인해 에너지 중 석유의 비중은 '98년 47.9%에서 2005년 46.0%, 2010년 44.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원별 수요전망〉

(단위 : 천TOE, %)

| 구 분 | 1998 | 2000 | 2005 | 2010 |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98-00 | 00-05 | 05-10 | 98-10 |
| 총에너지 | 27,425 | 36,157 | 45,427 | 53,592 | 14.8 | 4.7 | 3.4 | 5.7 |
| 비석유수요 | 14,295 | 18,403 | 24,522 | 29,956 | 13.5 | 5.9 | 4.1 | 6.4 |
| 석탄 | 708 | 372 | 67 | 12 | -27.5 | -29.0 | -29.1 | -28.8 |
| 전력 | 6,122 | 8,450 | 11,100 | 13,498 | 17.5 | 5.6 | 4.0 | 6.8 |
| 도시가스 | 6,454 | 8,281 | 11,775 | 14,596 | 13.3 | 7.3 | 4.4 | 7.0 |
| 신탄 | 1,011 | 1,300 | 1,580 | 1,850 | 13.4 | 4.0 | 3.2 | 5.2 |
| 석유수요 | 13,130 | 17,754 | 20,905 | 23,636 | 16.3 | 3.3 | 2.5 | 5.0 |
| 석유비중 | 47.9% | 49.1% | 46.0% | 44.1% | - | - | - | - |

- 가정상업부문의 석유소비는 2010년 1억 8,756만 배럴로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간별로는 '98-2000년은 연평균 18.2%, 2000-2005년은 연평균 3.2%, 2005-2010년은 연평균 2.3% 증가할 것을 전망됨.

- 유종별로는 '98. 8월부터 보급된 보일러등유가 난방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연평균 11.5%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반면, 경유 및 프로판의 수요증가율은 각각 3.9%,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가정상업부문 석유수요전망〉

(단위 : 천bbl, %)

| 구 분 | 1998 | 2000 | 2005 | 2010 |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98-00 | 00-05 | 05-10 | 98-10 |
| 가정상업계 | 102,139 | 142,582 | 167,005 | 187,559 | 18.2 | 3.2 | 2.3 | 5.2 |
| 실내등유 | 30,045 | 40,211 | 39,508 | 46,119 | 15.7 | -0.4 | 3.1 | 3.6 |
| 보일러등유 | 18,691 | 40,211 | 59,261 | 69,179 | 46.7 | 8.1 | 3.1 | 11.5 |
| 경유 | 19,682 | 23,537 | 28,021 | 31,169 | 9.4 | 3.5 | 2.2 | 3.9 |
| 프로판 | 25,331 | 28,300 | 30,500 | 31,977 | 5.7 | 1.5 | 1.0 | 2.0 |
| 기타 | 8,390 | 10,324 | 9,715 | 9,115 | 10.9 | -1.2 | -1.3 | 0.7 |

(4) 발전

- 한전의 중장기 연료소비계획('99년)에 따르면 석유수요는 2010년에 4,550만 배럴로 연평균 6.3%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됨
- 기간별로 '98-2000년은 연평균 34.8%, 2000-2005년은 연평균 0.2%, 2005-2010년은 연평균 2.6% 증가함
- 유종별로는 B-C유가 2010년까지 연평균 6.6%, 등·경유가 연평균 5.0% 증가함.

〈한전의 중장기 연료소비계획〉

| 구분 | B-C (천bbl) | 등·경유 (천bbl) | 석유계 (천bbl) | 석탄 (천톤) | LNG (천톤) | 기타 |
|---------|---------------|----------------|---------------|------------|-------------|-------|
| 1998 | 19,890 | 1,881 | 21,771 | 29,056 | 3,626 | 0 |
| 2000 | 37,048 | 2,485 | 39,533 | 29,063 | 3,489 | 0 |
| 2005 | 37,224 | 2,711 | 39,935 | 45,116 | 5,111 | 416 |
| 2010 | 42,734 | 2,768 | 45,502 | 49,853 | 5,222 | 2,184 |
| 연평균 증가율 | | | | | | |
| '98-'00 | 36.5% | 14.9% | 34.8% | 10.7% | -3.8% | - |
| '00-'05 | 0.1% | 1.8% | 0.2% | 7.0% | 7.9% | - |
| '05-'10 | 2.8% | 0.4% | 2.6% | 2.0% | 0.4% | 39.3% |
| '98-'10 | 6.6% | 3.3% | 6.3% | 5.0% | 3.4% | - |

주) 1. 기타는 오리멸전 2. 석탄은 향후 정부정책 결정에 따라 조정

(5) 도시가스부문

- 도시가스용 석유수요는 2010년 51.2만 배럴로 연평균 16.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도시가스용 LNG의 사용계획은 계속 증가할 계획이며, LPG(프로판)는 LNG로의 대체로 수요가 줄어들음.
 - 기간별로 '98-2000년은 연평균 43.5% 감소, 2000-2005년은 연평균 21.3% 감소, 2005-

2010년은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도시가스 연료사용전망〉

(단위 : 천 TOE, %)

| | 석유류 | | LNG | 계 |
|---------|---------------|-------|--------|--------|
| | | LPG | | |
| 1998년 | 406 (4,185천B) | 404 | 8,103 | 8,509 |
| 2000년 | 130 (1,334천B) | 128 | 10,765 | 10,895 |
| 2005년 | 40 (404천B) | 38 | 15,311 | 15,331 |
| 2010년 | 50 (512천B) | 48 | 19,614 | 19,664 |
| 연평균증가율 | | | | |
| '98-'00 | △43.4 (△43.5) | △43.7 | 15.3 | 13.2 |
| '00-'05 | △21.6 (△21.3) | △21.6 | 7.3 | 7.1 |
| '05-'10 | 4.8 (4.9) | 4.8 | 5.1 | 5.1 |
| '98-'10 | △16.3 (△16.1) | △16.3 | 7.6 | 7.2 |

3. 유종별 석유수요

1) 휘발유 : 자동차 대당 운행거리감소 및 연비개선, 정부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유가 정책등의 소비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급대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2010년까지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등유 : '99년도 수요의 큰 폭 증가가 반영되어 전망기간동안 연평균 6.4 %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실내등유 연평균 1.9%, 보일러등유 연평균 11.4% 증가)

※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의 구성비는 4:6으로 반영

3) 경유 : 육상 수송물동량의 증가세 둔화와 대도시 시내버스의 연료전환 (경유→천연가스) 및 정부의 경유가격 인상정책등으로 연평균 3.2%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보일러 등유의 보급으로 경유는 주로 수송용으로 사용됨

4) 제트유: 국제화 추세로 인한 여객기 이용증대와 수송 물동량증대로 연 평균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 B-C: 환경규제강화로 인한 청정연료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국제교역 활성화로 인한 해상물동량의 증가와 한전의 발전용 수요증대로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6) 프로판: 도시가스용 LPG가 LNG로 전환되고 LNG 보급망 확대로 가정상업용 LPG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연평균 1.3% 증가가 예상됨

7) 부탄: 영업용 택시 대수의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LPG차량 증대가 반영되어 연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유종별 수요전망〉

(단위: 천bb, %)

| 구분 | 1998 | 2000 | 2005 | 2010 |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98-00 | 00-05 | 05-10 | 98-10 |
| 총계 | 667,176 | 777,438 | 905,734 | 1,013,768 | 7.9 | 3.1 | 2.3 | 3.5 |
| 휘발유 | 60,614 | 68,900 | 85,994 | 99,144 | 6.6 | 4.5 | 2.9 | 4.2 |
| 실내등유 | 39,795 | 43,072 | 42,953 | 50,053 | 4.0 | -0.1 | 3.1 | 1.9 |
| 보일러등유 | 22,434 | 48,924 | 69,792 | 80,968 | 47.7 | 7.4 | 3.0 | 11.3 |
| 경유 | 124,934 | 139,240 | 165,405 | 182,126 | 5.6 | 3.5 | 1.9 | 3.2 |
| B-A | 2,310 | 3,121 | 3,585 | 3,750 | 16.2 | 2.8 | 0.9 | 4.1 |
| B-B | 1,263 | 1,648 | 1,842 | 2,008 | 14.2 | 2.3 | 1.7 | 3.9 |
| B-C | 106,718 | 139,948 | 162,430 | 184,337 | 14.5 | 3.0 | 2.6 | 4.7 |
| 제트유 | 17,288 | 19,221 | 25,156 | 32,381 | 5.4 | 5.5 | 5.2 | 5.4 |
| 납사 | 213,477 | 225,158 | 246,888 | 265,969 | 2.7 | 1.9 | 1.5 | 1.8 |
| 용제 | 582 | 878 | 1,025 | 1,131 | 22.8 | 3.2 | 2.0 | 5.7 |
| 프로판 | 43,672 | 44,640 | 47,786 | 51,245 | 1.1 | 1.4 | 1.4 | 1.3 |
| 부탄 | 24,236 | 31,373 | 39,614 | 46,969 | 13.8 | 4.8 | 3.5 | 5.7 |
| 아스팔트 | 9,851 | 11,315 | 13,263 | 13,705 | 7.2 | 3.2 | 0.7 | 2.8 |

용어해설



• 최고파괴자

최고 파괴자(CDO: Chief Destruction Officer)는 체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톰 피터스가 근작 '혁신 경영'에서 제시한 용어로 최고 경영자를 뜻하는 CEO를 대체할 새로운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관리자는 보호자라는 기존의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미래 경영 환경에서의 관리자는 파괴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피터스는 '파괴란 멋진 것'이라 표현하면서 21세기에는 개선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조금씩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점진주의적 사고 방식으로는 최고의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파괴를 통한 급진적인 개혁이야말로 기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권대 위기에 처한 기업이 난국을 헤쳐가기 위해 다운사이징을 실시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개선할 수 있겠지만 혁신을 통한 매출 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정 관념을 탈피하는 '파괴적 사고'는 앞으로 경영 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 밀레다임

밀레다임(Millegidigm)은 천년(Millennium)과 패러다임(Paradigm)의 합성어이다. 21세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가올 천년동안 인류를 지배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미래학자들은 새 밀레니엄과 함께 지난 세기에 통용되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경영, 정치, 사회,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관과 기술 수준의 변화가 몰려올 것이다. 디지털 혁명으로 불리는 정보화 사회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여진 네트워크를 타고 흐르는 가상공간상의 정보들을 기존의 사고틀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것이다. 첨단으로 치닫는 과학기술, 비영리조직(NPO) 여성계 소수 민족 등의 두드러진 움직임, 물질 문명의 개화와 개인주의적 사고의 확산 등이 예상된다. 윤리와 인간성 회복,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키는 정신적 지주의 필요성, 종교 역할의 재정립 등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찾으려는 경향도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